



케이블 TV 댄스 서바이벌 프로그램 '댄싱 9 시즌3'에서 우승을 한 발레리노 윤전일씨가 춤을 추고 있는 모습.



‘댄싱 9 시즌3’ 우승
‘블루아이’팀 윤전일

지난 6월 초 케이블 TV 댄스 서바이벌 프로그램 ‘댄싱 9 시즌3’ 결승전이 열린 날 경연장에는 ‘전일다방’이 문을 열었다. ‘블루아이’팀 멤버 윤전일(29)씨 팬들이 댄서들과 스태프들을 위해 마련한 차량 커피숍이었다. 시즌 1과 시즌 2 우승팀인 ‘블루아이’와 ‘레드윙스’가 맞붙은 시즌3에서는 윤씨가 포함된 ‘블루아이’가 우승, 상금 1억원을 받았다.

“고향 광주 팬들에 춤 보여주고 싶어요”

고2 때 선배 춤에 반해 상경 국립발레단·함부르크발레단 등 활동 댄싱9 우승으로 화제의 중심 메르스에 ‘팬텀’ 공연 취소 아쉬워

광주 출신인 윤씨는 한국예술종합학교를 졸업하고 국립발레단에서 주역으로 활동한 정통 발레리노다. 현재는 대형 뮤지컬 ‘팬텀’에도 출연하고 있다. 다양한 장르에서 활동중인 윤 씨를 전화 인터뷰했다. 팬페이지(너의 모든 순간·yoon-jeonil.dothome.co.kr)도 만들어지고 팬들의 성원이 대단하다는 말에 그는 부끄러운 듯 웃었다.

“처음에는 국립발레단과 발레 자체를 좋아하는 사람들 가운데 제가 춤추는 모습을 좋게 봐주시는 분들이 계셨어요. 그러다 ‘댄싱 9’에 출연하면서 팬이 늘었죠. TV는 보는데다 클래식 발레를 하는 남자 무용수 공연을 본 사람이 많지 않아 관심을 가져주시는 듯합니다.” 고등학교 2학년이 되어서야 발레를 시작한 윤씨는 초등학교 때부터 YG엔터테인먼트 연습생 생활을 했다.

“발리 무대에 서고 싶다는 욕심에 연습생 생활을 접고 나와 춤을 추기는 했지만 마음을 잡지 못하고 있던 때였죠. 어느날 존경하는 선배님이 학교에 오셔서 춤을 추셨는데 그제 발레였어요. 무작정 짐을 싸서 서울로 올라가 선배집에 머물며 두달간 발레를 배웠죠.”

이 때 그의 능력을 알아본 이가 있었다. 광주 발레계의 대모 엄영자씨다.

“선생님께서 콩쿠르에 출전한 저를 보시고 학원에서 한번 제대로 배워보지 않겠냐고 하시더라고요. 학원비도 받지 않고 가르쳐 주셨죠. 한예중예 입학해서는 역시 엄선생님 제자였던 김선희 교수님에게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동아무용콩쿠르 금상, 베를린국제무용콩쿠르 은상 등을 수상한 그는 대학을 졸업하기도 전 국립발레단에 입단, ‘돈키호테’, ‘로미오와 줄리엣’ 등에서 주역을 맡으며 승승장구했다. 2012년 루마니아발레단으로 입단, ‘백조의 호수’ 등에 출연했다. 그는 이듬해 함부르크발레단으로 옮겨 활동했다. 대학원 과정을 위해 잠시 한국에 들어와 ‘댄싱 9 시즌2’에 출연했던 윤씨는 그가 속한 ‘블루아이’가 우승을 차지하며 화제의 중심에 섰다.

“시즌이 시작하면 핸드폰, 지갑 다 회수하고 3개월 동안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몰라요. 숙소에서 나왔는데 팬이 생기고, 제 공연에 찾아오고 이런 게 신기하면서 부담스러웠죠. 시즌3가 방영되면서 팬들이 더 늘어났어요. 한 시즌에 7~10개 작품을 공연하는데 항상 새로운 춤을 추니까 힘들면서도 즐거웠습니다.”

그는 인상깊은 작품으로 발레리나 김주원과 함께 한 ‘The Book’과 한선천과 춘 ‘지킬 앤 하이드’를 꼽았다.

“주원이 누나와 그 춤을 춘 날이 세월호 1주기가 되는 날이었어요. 현실을 사실적으로



윤전일씨가 출근한 대형 뮤지컬 ‘팬텀’의 한 장면.

표현하는 것도 좋지만 같이 있을 때의 행복과 그리워하는 모습을 그려보고 싶었어요. 세상을 떠난 그 사람들이 나타나서 우리와 다시 소통할 수 있다면 어떤 모습일까 그려봤습니다.”

정통 발레리노 출신으로 ‘댄싱 9’ 출연을 결정하기까지는 고민도 많았다.

“고민들은 스트리트 댄스, 현대무용 등 다양한 장르에서 활동하는 멤버들과 팀을 이뤄 작업을 하면서 말끔히 사라졌어요. 함께 안무를 짜고 춤을 추면서 모두 똑같이 ‘춤추는 사람’이라는 생각을 하며 그들을 이해하고 존중하게 됐죠. 사람들이 좋아하는 음악을 바탕으로 거기에 녹일 수 있는 발레 동작이나 테크닉을 생각하는 게 발레를 더 알릴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했습니다.”

‘팬텀’ 참여는 김주원씨의 권유로 시작됐다. 극 중에서 팬텀의 아버지 역을 맡은 그와 김씨가 만들어내는 2인무는 관객들 사이에서 ‘팬텀’의 백미로 꼽힌다.

지난해 ‘댄싱 9’ 경연 후 한씨는 댄서들의 슬픈 이야기를 담은 ‘세드니스’를 무대에 올렸다. 오는 9월부터는 ‘백스테이지’를 공연한다. 무대에 서기 전 분장실에서 벌어지는 이야기와 무대 위 상황을 대변적으로 보여주는 작품으로 스트리트 댄스, 팝핀, 발레, 현대무용 등이 어우러졌다.

“광주에서 아직 저의 춤을 보여준 적은 없어요. 메르스 여파로 ‘팬텀’의 광주 공연이 취소돼 아쉽습니다. 광주에서도 다양한 작업을 하고 싶습니다. 항상 기다리고 있습니다.”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소설가 신경숙 표절시비 휘말려

“단편 ‘전설’ 한 부분 日 작가 ‘우국’과 흡사”



소설가 신경숙(사진)이 다시 표절 논란에 휩싸여 문단과 출판계 안팎이 시끄럽다. 1996년 발표한 단편 ‘전설’의 한 부분이 일본 작가 미시마 유키오의 ‘우국’과 흡사하다는 의혹이 제기된 것.

특히 올해로 등단 30년을 맞은 신 작가는 장편 ‘엄마를 부탁해’가 33개국에 판권 계약된 데 이어 미국 뉴윅타임즈 베스트셀러 작가로 뽑힌 터라 파장이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신 작가는 장편소설 ‘기차는 7시에 떠나네’ 등 다수의 베스트셀러를 펴낸 문단의 ‘행복보장수표’다.

소설가 겸 시인인 이용준씨는 지난 16일 한 온라인 매체에 ‘우상의 어둠, 문학의 타락’이란 제목의 기고문을 싣고 창작과비평이 출간한 신 작가의 ‘오래 전 집을 떠날 때’ 가운데 수록된 단편 ‘전설’(1996)의 한 대목이 미시마 유키오의 단편 ‘우국’(1983)의 일부를 표절했다고 주장했다.

한편 소설가 신경숙씨는 17일 자신의 1996년작 단편 ‘전설’의 일부 표절 의혹 제기과 관련해 “표절 의혹이 제기된 대상 작품인 미시마 유키오(三島由紀夫.1925~1970)의 ‘우국’(憂國)을 알지 못한다”며 사실상 의혹을 부인했다.

/박성천기자skypark@연말 뉴스

전남대 극문화연구회원들 극단 ‘용봉동우’ 창단

19·20일 공동예술극장서 첫 공연

전남대학교 극문화연구회(전대극회)에서 활동했던 이들이 최근 극단을 창단했다. 대학 시절 이후 직장인으로, 가정 주부로 생활에 쫓겨 20~30년간 연극과는 멀어져 있었던 사람들이다. 연극이 좋아서, 연극을 하고 싶다는 이유로 다시 모인 이들은 극단 ‘용봉동우’를 통해 그 시절의 꿈을 좇는다.

극단 ‘용봉동우’가 첫 작품 ‘그녀들만의 공소 시효’를 무대에 올린다. 19·20일 오후 3시·6시 공동예술극장.

김관희씨의 희곡을 무대로 옮긴 이번 작품은 현대인들의 지상 목표인 ‘행복’에 대한 다양한 질문을 던진다.

연극은 동네 주부들이 주막가에 버려진 쌀통을 발견하면서 시작된다. 쌀통 처리로 고심하던 주부들은 쌀로 떡을 해먹기로 하고 쌀통을 열지만 그 안에서 발견된 건 다섯 개의 손가락과 아이의 발. 예기치 못한 공포스러운 상황에 빠진 동네 주부들은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할까. 작품은 코믹한 터치로 공포와 돈에 집착하는 쓸쓸한 단면을 그려나간다.

임유진씨가 연출을 맡았으며 안미심·김진희·안유민·배능희·박선주·임원씨가 출연한다. 이번 작품은 제36회 근로자연극제 참가작이다. 연극제는 오는 21일까지 서울 대학로를 비롯한 전국 각지의 공연장에서 무료로 진행되며, 심사위원이 직접 방문해 심사한다.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광주시민인문학 22기 강좌

내달 12일까지 전남대 정문 앞 ‘노블’...정규강좌·SEMI강좌 진행

광주시민인문학이 22기 강좌를 연다.

내달 12일까지 전남대 정문 앞 카페 노블에서 열리는 이번 강좌는 정규강좌와 SEMI강좌로 나눠 진행된다.

정규강좌(오후 7시30분)는 소설탐색, 철학강독, 일본연구반, 소설영화반으로 나눠 진행된다.

원도일씨는 이진(국문학) 교수가 ‘한국현대문학, 다면체로 읽기II’를 주제로 이야기한다. 화요일은 안정선 예술심리상담사가 “미술로 풀어보는 마음, 그리고 휴식”을 매개로 시민들을 만난다. 수요일은 ‘베르그송, 결정론이 아닌 인간 자유의 존재성을 말하다’를

주제로 이룬스티디를 한다. 목요일과 금요일(오전 10시 30분)은 명혜영(일문학) 교수가 ‘나쓰메 소세키 ‘마음’-하트와 로지 사이’, ‘가족’이라는 이름의 전지-유미리의 ‘가족시네마’를 주제로 강의한다.

SEMI강좌(토·일 오후 2시)에서는 ‘위러워의 무비토크 영화화 다시 한번’, ‘일상 자급자족프로젝트-연극, 콘서트, 미술, 스포츠 등을 체험하는 공간’이 진행된다.

수강료 학생 1만원, 조합원 2만원, 일반회원 3만원. 네이버 카페 ‘광주시민인문학’ 참조. 문의 010-4624-1201.

/박성천기자skypark@kwangju.co.kr

장성군 북하면 소재 생산관리지역, 보전관리지역

임야 매매

편백, 삼나무 수령 40~50년생 조림
50만주(현재 묘목 : 주당 3000원)

계곡이 깊어서 물이 마르지 않고
공기와 경관이 최상지로
계곡따라 산책로 8km 조성 되어 있음!

면적 107만㎡ 매가 25억
(3.3㎡당) 평당 7,700원 정도

010-6518-7123

퇴직하신 분과 귀촌인을 위한 **전원주택**

매매 2억 고창군 공음면 칠암리(공음면소재지)
대지 200평/건평 35평

더 자세한 정보를 알고 싶으시면
NAVER **고창에 집짓기** 클릭 하세요

**노무현 전 대통령님
봉하마을 사저와 부엉이 바위 펜화**

원형 그대로 가로 65cm x 세로 53cm
50만번의 펜선이 모여 완성된 펜화가 김영택의 작품.
펜화로 찍은 10점(완정판) 중 남은 2점을 양도합니다
펜화 가격은 1점당 120만원이며
원화를 구매하고 싶으시면 개별적으로 협의하겠습니다.

010)3722-3076

옥상·외벽·내벽·주택 **방수**
전문방수방수

기술 필요없이 누구나 직접 방수를 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쉽게 붓이나 롤러로 직접 칠해주세요”

- 옥상 지붕이 새는 건물
- 외벽, 내벽, 화장실
- 바닥이 오래되어 모래가 일어나는 옥상 및 바닥
- 장미철 누수 및 습기찬 곳
- 옥상방수 하자에 지치신 분
- 낡은 옥상을 새 옥상으로 만들어 줍니다.

- 가격이 저렴하여, 시공면을 깨끗이 물 청소하시고 롤러로 직접 칠해 주세요.
- 고품무성, 무공해 무독성 제품으로 건물의 수명을 연장시켜 줍니다.
- 물기가 습기가 있는 곳도 공사할 수 있습니다.

역사와 전통의 **미화표**를 꼭 확인하세요...

ENG 이앤지 방수, 바디재 전문생산업체
이앤지 방수주 062-367-7755
광주광역시 서구 농성동 660-29